

허태정 음료수 논란 솜방망이 처벌... 野 “선관위, 권력눈치보기 아니냐”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 명의의 음료수를 대전시청 공무원 준 혐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시 공무원에게 경고처분 통보에 그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2년을 맞은 기념으로 이달 1일 시 분청 모든 직원에게 음료수를 돌렸다. 이렇게 돌린 음료수 비용은 약 3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음료수 병에 스티커로 붙은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 가운데 허 시장의 실명이 공직선거법 가운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장 직위가 없는 상태에서 허 시장의 이름 석자만 들어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지역 야당들은 허 시장에 대해 강력 비난하는 등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일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 선관위는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의 기간에 상관없이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특히 “기부행위를 한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며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의 법리해석에 따라 허 시장은 물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전 선관위의 성역 없는 조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한국당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2년째를 맞아 시청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선물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1년 내내 잇달아 하면 등장했던 ‘허태정 리스크’가 집권 2년차 첫 날에 도돌이표로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전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허 시장 본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어 선관위는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억울한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해 한국당 대전시당은 15일 성명서에서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허태정 시장 명의로 그것도 1500여명에 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핵심 당사자이자 집권여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보고 힘 없는 실무자를 대신 회생양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것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벼이 처벌한 사항이 아닌에도 아예 경고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 할 때부터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선관위는 도가 지나친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선거법상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에 그치게 된 것”이라며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라고 해서 봐주고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김성구대전투데이 사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과 환담 나눴다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사진 오른쪽>은 15일 오전 천안시장실에서 민선7기 1주년을 맞은 구본영 충남 천안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구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천안시정을 믿고 따라주시는 70만 천안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제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기슴으로 일하자’라는 구호를 천안시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시장 행정에 전력을 다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시장은 “향후 역점시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서횡단철도(천안~동해안) 완공을 통해 천안이 명실상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사진 오른쪽>은 15일 오전 천안시장실에서 민선7기 1주년을 맞은 구본영 충남 천안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구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천안시정을 믿고 따라주시는 70만 천안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제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기슴으로 일하자’라는 구호를 천안시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시장 행정에 전력을 다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시장은 “향후 역점시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동서횡단철도(천안~동해안) 완공을 통해 천안이 명실상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

충남도계 ·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대법원 앞 피켓시위 시작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병행해 1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피켓시위에서는 공동위원장 전 위원과 위원들 참석해 피켓을 들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염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호소하고 서부두에 대해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하며 대법원에서도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시작한 당진 땅 수호 촛불집회는 현재 1450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도 1048일째 당진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진행함에 있어 당진시민은 물론 충남 15개 시군 도민들도 함께 동참해 빼앗긴 충남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ONETOP

저희 원탑스튜디오는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CF 방송 광고 등
다년간의 수많은 영상제작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절고 창의적인 감각을 더해
광고주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전광판 및 스크린 영상 광고 | CF 방송 광고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문의 전화 | 070-7434-8508

대전 시내버스 파업 대란 오나... 市, 비상 교통체계 가동

오는 17일 파업 앞두고 노사 합의점 못찾아... 파업시 시민들 큰 불편 예상

오는 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중재에도 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따른 비상 교통 수송 체계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후 5시 시장실에서 노사 양측 대표를 만나, 15일 오후 2시에 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사정 간담회 시 긴급단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노동조합 김희정 위원장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마음이 무겁지만 주52시간 근로 형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리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조원들의 충지를 모

아 대화로 노사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2차례 대표를 맡고 있지만 노사정 간담회 마련 등 그간 시장이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처음이어서 책임이 더 무겁다"며 "노조 측과 더 이상 막다른 곳까지 가지 않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번 사태는 노사합의가 원칙이지만 버스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 휴일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15일 오후 2시 노사

정 간담회를 갖도록 지시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측은 주 5일, 월 22일 근로하면서 월 24일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24일을 근로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오는 17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증편 운행 및 운행시각을 단축하기로 했다. 혼잡 등 시간대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운행 열차의 최적의 스케줄을 반영했다.

버스파업 시,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평일 24회 운행하는 열차를 48회 증편해 290회 운행하고 토·일,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

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07:10~09:10, 17:50~19:50)하고 5분 간격으로 운행시각을 단축해 대기시간을 줄인다.

10분~14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다른 시간대 운행시각도 8분~12분 사이로 단축해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열차 이용 편의도 돕는다.

24시간 가동되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수송인원이 많은 역에는 안전수송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지원한다. 공사는 이번 열차 증편 운행으로 평일 수송 인원 12만 명보다 많은 14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이용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허 시장은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조합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사정간담회 등 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보령 해저터널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수산위원회가 국내에서 첫 번째이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 공사 현장 및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등을 방문해 점검·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보령 해저터널의 하행선 방향이 지난 6월 10일 관동대 양방향 굴착을 마친 상황에서 공사 추진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가두리 양식장 및 지방하천과 지방어항의 현장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이상민 의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만들 수 있는 로스쿨로 거듭하게 하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1건, 보령 6건, 건의인 2건 등 모두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분 환 의원은 ‘대전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을, 홍종원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바람직한 신축방안’을, 박해련 의원은 ‘지방입지개발공무원 임기 및 처우개선’을, 손희영 의원은 ‘대전구 사회복지관 건립 촉구’를, 김찬술 의원은 ‘트램 차량기지 위치 이동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기반방향이 발제를 통해 ▲로스쿨 도입 경위와 취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면, 입학생 70%가 28세 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서울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반대 진영 맹목적 비판 여론 분열만 초래”

입장문 발표 “환경영향분석과 경제효과 등 면밀히 분석 후 결정내려야”

그동안 세종보 해체 방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세종시의회 서규택 의장이 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의장은 세종보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 의장은 “세종보의 64%가 가동보 구간으로 되어 있어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며 “여름에는 보를 개방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기대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물을 가둬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세종보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따라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건립되었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서 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에 추가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견 수렴과 갈등 조율, 합의 도출이라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업용수 공급 사각지대 해결 필요”

저수지 인근 주민은 정착농업용수로 활용하지 못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13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농림축산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사업이 예산 대비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나 수로 등을 만들고 있지만,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로

공사 위주로 추진 되다보니, 저수지 인근 농민은 이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동리지역 외에 사각지대에 경작지를 둔 일부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사업이 예산 대비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득용 위원장(천안)은 “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이 투입대비도 저수지나 수로 등을 만들고 있지만,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로

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다”며 “도나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해 시행하는 대규모 용수확보 사업보다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용수정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김정환기자

“중부 해경청 당진이 최적지”

여기구 의원 국회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 면담



더불어민주당 여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5일, 국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하고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이하, 중부해경청)의 당진 이전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이 지난해

인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해경청은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부해경청 이전을 위해 최근 해경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11월까지 용역조사를 마친 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중부해경청 임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구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에 대해 해경을 비롯해 해수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장차 관과 해경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중부해경청의 당진으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해왔

으며,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해수부장관으로 취임한 문성혁 장관은 여기구 의원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별히 살펴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경이 중부해경청 이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당진시는 이견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부청 유치 TF를 구성했다. TF는 향후 중부청 유치에 관한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조만간 해경 본청 및 중부해경청을 방문해 당진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구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유치에 당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부해경청이 당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5일 제244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7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16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폐안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조만간 해경 본청 및 중부해경청을 방문해 당진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국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분 환 의원은 ‘대전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을, 홍종원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바람직한 신축방안’을, 박해련 의원은 ‘지방입지개발공무원 임기 및 처우개선’을, 손희영 의원은 ‘대전구 사회복지관 건립 촉구’를, 김찬술 의원은 ‘트램 차량기지 위치 이동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정의당 세종시(준) 위원장

이혁재 위원장 선출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에 이혁재(46, 전 정의당 사무총장·사진), 부 위원장에 김성선(34, 현 세종시당 운영위원), 강형석(50, 현 세종시당 환경위원장), 문경희(49, 현 세종시당 위원장), 이정미(50, 현 세종시당 공동 노동위원장), 이재일(51, 현 IFDA아시아본부 자문위원)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이혁재 위원장은 “정의당 세종시당을 유능한 민생정당 실력있는 정책당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넘어서는 정치적 대안 세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 세종에서 승리하여 정의당 원내 활동, 고충처리 창구 운영, 각 정당에게서 대안으로서의 총선 승리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전국위원(1명), 당대회대의원(3명), 세종시당 대의원(7명)도 함께 선출됐다.

이정복기자

“자치분권, 반드시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위한 5대 선언문’ 발표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을 피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5대 선언문은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원창복 원주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형식 담양군수가 공동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언론인과의 질의답변 시간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정부까지 고려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별로 재정적 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 보호 인상 해악이 기초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악의적 민원고객으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장치 절실”

채계순 대전시의회 의원, 컨택센터 노동자 권익증진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접 전화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콜센터 감정노동자들로부터 컨택센터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자 ‘컨택센터 노동자 권익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인 민원고객으로부터 인격 비하, 폭언·욕설, 성희롱 등

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고강도의 실적 압박과 인건 침해적인 평가시스템, 피해 상담사 보호체계 부족 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콜센터 상담사들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 취약 노동계층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악성소비자 대응 부족, 고객우위의 판단, 상담사들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건강관리 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상담사들을 위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고객 응대 매뉴얼 활용, 고충처리 창구 운영, 직무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각 정당에게서 대안으로서의 총선 승리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전국위원(1명), 당대회대의원(3명), 세종시당 대의원(7명)도 함께 선출됐다.

김정환기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통과 주력

허 시장, 여러 여야 의원들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 당위성 피력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국회를 찾아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허 시장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이현승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여러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안의 소위 통과를 물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허 시장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타 지역과 달리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에서 배제된 점을 설명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그

지역학생들을 30%까지 충원해야 하므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타 지역 혜택이 될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6일 합의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선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관련 법안 심사가 열리는 17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카메라/고발



대전시체육회관 주차장 비만 오면 상습 침수

15일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내린 국지성 소나기로 인하여 중구 대충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대전시체육회관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자동차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전시체육회관의 주차장은 비만 오면 테니스장의 토사가 유출되고 배수구는 물이 빠지지 않아 상습 침수가 되고 있어 체육회 근무자들이 이동조차하기 바쁜 실정이다.

유정은 교수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 가미소오산의 유방암 억제 효능 밝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 여성의학·비만센터 유정은 교수 연구팀은 가천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가미소오산의 유방암 세포 억제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SCIEI급 저널인 국제학술지 'Biomolecules' (IF 4.6)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미소오산의 구성 성분 중 Gallic acid, Decusin, Decusinol anglate는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했으며 western blotting analysis에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여성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안면홍조, 불면과 같은 갱년기 유사증상이 나타날 때 처방한 가미소오산이 유방암에도 안전한 치료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갱년기 장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대체요법은 장기간 사용 시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이 있는데, 한약처방인 가미소오산은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면서도 유방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갱년기 장애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가미소오산은 냉증, 월경불순,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등의 적응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처방으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molecules'에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active compounds from Gami-soyosan toxic to MCF-7 human breast adenocarcinoma cell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됐다.

송병배 기자

대전시 청년창업가 초기 생존율 높인다

청년창업지원카드로 최대 300만원 지원

대전시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대전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올해부터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은 기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로, 창업 후 6

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매출 조건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수익이 거의 없고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초기 창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금액 또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는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http://www.djst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되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 받아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



동에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희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과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며,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와 사업수행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042-719-8341)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우리 시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지역의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언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꾸준한 개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기본적인 활동자금 지원이 다 소나미 지역 내 청년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건축물 철거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김종태는 오는 19일까지 '건축물 철거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에 철거공사 현장 36개

소에 대하여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중장비 등 전도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지만 안전성 확보 여부 및 상층부 철거 시 지지부재 안전성 여부 등 철거 현장 내 안전조치 사항과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

을 중점점검한다.

서구 관계자는 "잠원동 철거 현장과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철거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관 기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건축 실현한다

충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가져

충남도가 도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강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우수한 민간 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공공건축가는 2년간 공공건축, 도시재생뉴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사업, 공간환경조성사업 등 도내 주요 건축사업에 대한 기획·디자인 자문을 통해 사업공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간 융합과 균형을 조율한다.

또 에이치아이비(HIB, human building interaction) 시스템과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도정 방침을 시각화하고, 다수의 지역 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공공건축가로 위촉한 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 ▲수석공공건축가 장순각 한양대 교수, 이정훈 조호건축사 사무소 대표 ▲중진건축가 31명 ▲신진건축가 30명 등 총 64명이다.

도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문화 품격 창출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 특 ● 정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사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16일 오전 11시 10분 대전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사회에 참석.

대전 국제 IP페스티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16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대전 국제 IP페스티벌에 참석.

주민참여예산 학교개최



황인호 동구청장=16일 오후 3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개최.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장 방문



박용갑 동구청장=16일 오전 10시 '산서로 사전거보행' 이용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점검에 나선다.

후원금 기탁식행사



정용래 유성구청장=16일 오전 10시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이연씨 후원금 기탁식행사'에 참석한다.

대덕구 일상생활지원센터 운영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내에 일상생활 속 소소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및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일상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생활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먼저 새롭게 구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소규모 주민 봉사단체 등을 연계해 지난 11월 총 180여명이 참여한 동별 자원봉사자를 발족하고 대덕구 12개 동별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홀몸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이웃 등 소소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일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정리, 환경정화 등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센터는 가정에서 소소한 생활공구가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 구입이 부담스러웠던 주민들에게 공구 등을 대여하고 원활한 생활 불편해소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동에 공구세트, 전동드릴 등 공구함을 구비했다. 대여기간은 최대 3일이며 신분증만 소지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다. 대덕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활동을 통해 나눔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손이 급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생활불편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 소소한 일상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일손과 공구 등이 필요한 이웃은 일상생활지원센터(042-608-6994)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대덕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조사 나선다

대전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토대 마련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걸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조사'는 국내·외 문화콘텐츠산업 특성과 동향, 시장·기술이슈, 대전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인적·물적 인프라 현황 및 기업 현황조사 등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대전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전시 소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으로, 통계청 전국사

업체전수조사 및 진흥원의 지원 기업 리스트 자료를 확보 후 확정(표본)해 진행한다. 조사범위는 총 10개 산업 분야로 출판, 음악, 광고, 공연, 애니메이션은 일반조사로 이뤄지며, 게임, 가상 현실(VR)·증강현실(AR)/응·복합, 영화/방송, 만화/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출판 분야는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용역발주는 진흥원 홈페이지(www.dcia.or.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해 입찰참여업체의 제안서 제출·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후 업체를 선정, 8월 중순경 현황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제안 내용은 조사기획 세

부계획 및 전략,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역 내 심층조사 대상기업 탐색 및 유효기업 추가 발굴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며, 입찰참가 자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진흥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오는 31일 실시된다. 그동안 대전시와 진흥원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e스포츠 상설경기장, 콘텐츠코리아랩 등 콘텐츠장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게임, 영

상,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 등 7대 분야 44개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 영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와 진흥원은 5G상용화로 실감형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선 기자

중구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홀몸노인·장애인가정 방충망설치



는 노인인 장애인 73세대를 모두 조사해, 방충망이 아예 없거나 망가졌지만 보수하지 못한 가정을 찾았다. 여기에 주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5가정은 새로 설치하고, 8가정은 보수했다. 30년 이상을 방충망 없이 사셨다는 한 노인은 "그동안 모기가 무서워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두지 못해 힘들었는데, 올 여름에는 마음껏 문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광자 동장은 "방충망 설치가 구슬땀을 흘려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방충망처럼 작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오류동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자 사

대전 중구 오류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광자)는 여름철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방충망 설치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자 사

산성동 "시원한 생수 드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무료 이용 냉장고에 생수 비치



대전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준석)는 내방객을 위한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8월까지 제

공한다. 이용구 주민자치위원의 후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대형 냉

장고 1대를 놓고, 누구든지 쉽게 생수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 3년 전 처음 시작했던 생수 냉장고는 주민의 큰 호응으로 올해에도 추진된다. 이용구 위원은 "무더위워터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원한 물과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냉장고에 생수가 떨어지지 않게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동장은 "일찌감치 예보된 폭염에 주민의 건강이 염려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시원한 생수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민이 더불어 함께 나누는 훈훈한 정이 있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케이팝(K-POP) 콘서트 대전시 국비 1억원 확보

대전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년도 케이팝(K-POP) 콘서트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 4개 기관·단체가 응모한 이번 공모에서 대전시는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지원금인 1억 원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가칭대전 케이팝(K-POP) 아스타 콘서트를 10월 12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콘서트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스타급 2개 팀을 포함해 약 10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시는 관광객이 대전에서 1박 2일 이상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청년단, 성심당, 테미오래 등 대전 주요 여행지 및 맛집과 케이팝(K-POP) 콘서트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대전 케이팝(K-POP) 콘서트의 성공개최를 위해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웨이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용두 관광마케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대전시가 케이팝(K-POP)에 충분한 경쟁력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가올 대전 케이팝(K-POP)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만료 통장감사패 수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1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임기만료 사임자에게 퇴임한 통장 2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퇴임 통장들은 구 조례에 따라 1회 임기 2년에 2번의 연임까지 마치며 총 6년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행정복지센터에는 마을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박용갑 청장은 "크나큰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회합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관광명소와 도로명 안내도 500부 제작

동구, 도로명·도로구간·주요 건물명 수록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관광 명소 홍보 및 도로명주소 활용 증진을 위한 안내도 500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도 배포는 도로명주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안내도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변경된 지형·지물을 모두 반영하고 16개 동(洞)의 통별 구분도 실어 주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로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도로구간, 주요 건물명, 건물번호를 기재했으며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과 함께

동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동명(洞名) 유래와 관광 명소 안내도 수록했다. 구는 민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추가 제작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내도는 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방문해 무료로 수령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와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안내도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



충 등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도 실시해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 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유성구 업무 협약식 개최



유성구기관협의회(회장 정용래 유성구청장)는 지난 15일 유성구의회 세미나실에서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성구청장, 유성구의회 의장, 유성경찰서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유성지사장,

제1970부대 3대대장 등 유성구기관협의회 15개 기관장이 참석해 유성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성구기관협의회는 지난 3월에 유성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5개 기관들이 참여해 구성됐다. 유성구기관협의회 회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재난 예방과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성구기관협의회 협업을 통해 유성이 안전찬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관기자



노은2동새마을부녀회, 지족1동 경로당에 새마을이동빨래방 운영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노은2동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미선)는 15일 오전 9시부터 지족1동 경로당에 다문화가정과 홀로어르신들 9세대 15세에 이불세탁을 새마을이동빨래방 차량을 이용해 실시했다. 한편 유성구새마을부녀회는 16일 신성동 17일 관평동 18일 구죽동 19일 전민동을 순회하며 새마을이동빨래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대전본부, 직원 및 가족 350명 초청

'영화 관람 행사' 열어

농협대전본부는 지난 11일 롯데시네마 대전점에서 대전 관내 직원 및 가족 350명을 초청, '영화 관람 행사'를 실시하고 최근 선종적 인기를 끌고 있는 「스파이더맨 프롬 홈」을 단체관람 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대전본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직원간 소통 활성화와 워라밸 조직문화 조성으로 활기찬 대전농협을 만들고 비싼 업무로 고생한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비싼 일과에 지친 직원들의 활영화관람 전에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선물 증정, 기념촬영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비싼 일상에 지쳐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서 "오늘 같은 행사가 더 많이 개최돼 동료 직원들과 친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노조 손명환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대전농협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과 가족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비싼 일과에 지친 직원들의 활영화관람 전에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선물 증정, 기념촬영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치매 예방프로그램 주1회씩 진행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은 KB금융그룹에서 후원하고 한 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는 KB국민건강총명학교 '총명 한 어르신, 우리 행복은 두배더' 12회기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15일 오전 10시 개강, 오는 9월 30일까지 주1회씩 진행한다. KB국민건강총명학교는 건강 생활실천, 총명한 노년기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노인을 선별 및

발굴을 통해 4대 영역(인지, 신체, 사회, 영항)으로 구성된 12회기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총 25명의 대상자가 참여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이번 KB국민건강총명학교는 대덕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서포터즈 양성 및 지역내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공주 밤' 활성화 방안 간담회 열려

공주밤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밤소비 촉진·밤 농가소득 기여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2일 농업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주 밤'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주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해 공주밤 수매를 책임지는 농협 및 수매상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 밤 활성화를 놓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 국립산림과학원 황명수 박사의 '공주 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되며 이어 공주시 밤 재고량과 올해 생산될 공주 밤의 유통과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주밤 산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밤 생산과 적절한 수매가격 결정 그리고 생산부터 수매, 판매시장이 공주지역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과 종과를 이용한 상품개발 ▲간밤 소비증대에 따른 탈피기 지원 ▲원물을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2차 가공업체 지원 ▲공주밤 원산지에 대한 단속 강화 ▲공주 밤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김기형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공주 밤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제13회 '서산6쪽마늘 축제' 성황

서산6쪽마늘·양파·감자 등 지역 농산물 3억 2천여만원 상당 판매

서산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인 서산 6쪽마늘을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14일 까지 3일간 서산해미읍성에서 펼쳐진 '제13회 서산6쪽마늘축제'가 2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산6쪽마늘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희운)의 주관으로 열린 이 축제는 '행복담은 슈퍼푸드, 서산6쪽마늘!'이라는 슬로건 아래 판매,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개막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6쪽마늘을 의미하는 6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마늘 빨리까기 등 '6쪽마늘을 활용한 게임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 11월 서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세마를 부녀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6명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유명 가수 초청공연, 마술쇼, 마인공연,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뜨웠으며, 네일아트, 케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마늘빵·마늘아이스크림·마늘닭강정 등 마늘을 이용해 만든 간식도 판매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축제 판매장에서는 서산6쪽마늘을 비롯해, 양파, 감자 등 지역농산물이 인기를 끌며 3억 2천여만원 상당이 판매되어, 홍보효과는 물론 최근 산지가격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축제가 서산6쪽마늘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서산6쪽마늘이 세계적인 명품 마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서산6쪽마늘 축제 기간 동안 농협대전유통에서 특관행사, 대전 금요장터 참가, 충청남도 공무원 대상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축제장 밖에서도 서산6쪽마늘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농협 고향주부모임 품앗이 일손돕기

충남 부여지역 알밤 작업장에서 품앗이로 일손 지원해



'금산사랑상품권'

이용·홍보 캠페인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유통되는 '금산사랑상품권' 이용 및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나섰다.

지난 12~13일 부리면 금강어울축제 행사장을 찾아 (사)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충남지회 금산지부 회원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이용, 전통시장 이용하기, 물가안정, 여름철 에너지 절약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 및 물티슈를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 유통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산사랑상품권은 개인 구매시 3%(명절5%) 할인 혜택으로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구매와 환전은 관내 NH농협은행, 지역농협, 축협에서 가능하다.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전용석, 이하 대전농협)와 고향주부모임 대전시지

송병배기자

회(회장 박종근, 이하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지난 12일 알밤 가공 작업장을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회원 약 30명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소재 부여 알밤 작업장에서 알밤 껍질 제거 및 포장작업을 도왔다.

알밤 작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알밤을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이렇게 도시 주부들이 와서 농작업을 도와주셔서 큰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향주부모임 박종근 회장은 "요즘 농가는 1년 내내 영농철이라 항상 일손이 부족하는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번 일손돕기를 실시하게 됐다"며 "직접 와서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농업인과 함께 일을 해보니,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자유한국당에 현안과제 56건 전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김규환 의원, ▲임이자 의원, ▲이현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백종운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

연금 부담금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롭스 대전은행동점, 땀냄새 걱정이제 그만

롯데의 헬스&뷰티 스토어 '롭스(LOHB's)' 대전은행동점 직원들이 '니베아 데오드란트 펄 앤 뷰티' 스프레이로 구성된 롱스 단독 기획팩(200ml×2, 1만 5800원)을 선보이고 있다. 니베아 데오드란트는 여름철 땀과 땀냄새 제거는 물론 스킨케어 기능을 제공해 일상 생활에서 자신감을 주는 아이템으로 인기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36-20 대우빌딩 7층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면천군수재임 당시 수축한 골정지에 연꽃 가득

연암 박지원의 애민정신 연꽃으로 피어나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애민정신이 깃든 당진시 면천면 골정지(骨井池)에 최근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골정지는 1797년부터 1800년까지 면천군수로 재임한 박지원이 당시 버려진 연못을 주변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축했는데, 연못 중앙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한 조각이 봉 정자'라는 뜻을 가진 '건근일초정(乾坤一草亭)'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골정지 연꽃은 중순을 넘어서

면서 백련부터 홍연, 분홍연, 노랑연 등 다양한 색상의 연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 전망이다.

특히 이곳 골정지에 핀 연꽃들은 직경이 약 25cm에 이를 정도로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다.

남광현 당진시 문화재담당은 "연호방죽으로 불리는 합덕제의 연꽃은 엄청난 규모로 단상을 자아낸다면 골정지 연꽃은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연꽃의 크기 자체만큼은 다른 연꽃들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화려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출범

박명훈 연합회장 "지역소상공인 권익 향상 노력"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명훈)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출범식을 열고 박명훈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구성을 완료하며 정식 기구를 출범했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3기 출범식을 통해 전국소상공인연합회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법정 단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잘못된 관



행을 탈피하고 불공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명훈 회장은 "이번 출범식을

출발점으로 공주시 경제를 움직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제대로 된 권익을 보호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며 연합회 출범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정섭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야 공주시가 잘 살 수 있기에 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8월에 출시되는 공주시청 전자상품권 '공주페이'가 소상공인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1억 원 이내의 홍보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지원, 정보화 지원,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등에 사용할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며, 시는 기인 기업의 사업계획서, 성장성 등 기업의 발전 계획과 의지를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은 오는 22일 협동의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교육청, 2019년 제1차 대전미래교육포럼 개최

미래 교육환경, 미래를 향한 사람들의 변화, 학교교육과정 변화모습 등 살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5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전 시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제1차 대전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미래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0년 대전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전교육정책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2030년 미래교육, 이렇게 다가온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I 학교 민주주의, II 교육과 보육, III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발표, '함께 만들어가는 대전미래 2030'을 주제로 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목원대학교 조은순 교수가

'2030년 대전미래교육,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미래의 교육환경, 미래를 향한 사람들의 변화,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입체적 교육환경, 개별학생 맞춤형 수업 내용, 사람중심의 테크놀로지 활용, 생애교육형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어서 산홍초 김원구 교장이 '학교민주주의, 교육의 꽃을 피우자'를 주제로 민주적 학교문화 및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2030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대전글로벌 강영미 학부모가 '교육과 보육, 마을과 동행하다'를 주제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참여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학부모 활동 강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활동, 학교 내·외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대전전민고 문준석 교사가 '교육과정, 학생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다'를 주제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 성장을 돕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중앙교육연구원 조동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대전산홍초 정소연 실장, 우송고 한용훈 학생을 포함한 6명의 패널이 2030년 대전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청중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신재생에너지 해외 사례 살펴



아산시(시장 오세현)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태양에너지·수소연구소(ZSW) 방문을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공식일정을 마쳤다.

유럽 주요 에너지 연구기관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수소연구소(ZSW)는 태양에너지 활용과 수소 등 대체 재생에너지 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정책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다.

연수단은 주요 연구진으로부터 태양광 기술발전 추이와 수력발전소 인근에 수소플랜트를 지어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브리핑을 듣고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랑스 파리 방문시 주요

관광지인 세느 강변에 자리 잡은 수소충전소 및 수소택시 시범운영지를 찾아 운영실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했던 연수단은 독일 내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과 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에 따른 안전문제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수소경제에 관한 관심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풍력과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소득까지 올리고 있는 흑립 풍력단지 및 프라이머트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풍력 활용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독일 환경에 어울리게 일찍부터 지역 주민의 공동투자로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0년 후에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도시철도 '시내버스 파업 시 48회 증편 운행'

출퇴근시간대 연장 운행시격 단축, 안전수송 지원인력 투입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17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증편운행 및 운행시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혼잡을 등 시간대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운행 열차의 최적의 스케

줄을 반영했다.

버스파업 시,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평일 242회 운행하는 열차를 48회 증편해 290회 운행한다. 토·일,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07:10~09:10, 17:50~19:50)하고 5분 간격으로 운행시격을 단축해 대기시간을 줄인다.

10분~14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다른 시간대 운행시격도 8분~12분 사이로 단축해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열차 이용편의도 돕는다.

24시간 가동되는 상황반을 운영

하고 수송인원이 많은 역에는 안전수송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을 지원한다.

공사는 이번 열차 증편운행으로 평일 수송 인원 12만 명보다 많은 14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이용문의는 고객센터(042-539-32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버스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역사시설물과 열차 이용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정수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므로 도시철도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선기자

서부농협, 대전여상과 산학협력 협약

"2019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지원관련 직업체결 실시"



대전 서부농협(조합장 임현성)은 대전여상교장 윤정환과의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5일~19일까지 5일간 대전여상 학생들의 직업체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직업체결은 농협의 소개와 금융교육, 고객맞이 및 안내,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체험 등이 다.

임현성 조합장은 "학생들에게 농협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농협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안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일정기간의 직업체결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의 기회를 가지므로써 취업의식 및 직장생활 마인드를 고취해 미래 한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체험 등이 다.

임현성 조합장은 "학생들에게 농협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농협

청양군, 공간기획 그룹 간담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양군(군수 김문관이) 공공유 소유공간을 주민 주도형 소통편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일 청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간기획(플래닝) 그룹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군은 총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현재 청양읍 소재 (구)대성체육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의 의견을 중심에 두기 위해 전문가, 학생,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간플래닝 그룹의 첫 만남으로 주민참여형 설계 도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행안부 황석연 서기관이 참석해 사업 개요를 설명하면서 우수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청양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대상 장소를 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이 모여 현안문제를 푸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청양=정성범기자

at, 대만·미국 등에서 양파 수출 위한 대규모 단일 판촉행사

'한국양파주간' 행사 열린다

국산 양파가 단일품목 최초로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갖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는 국산 양파를 해외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단일품목 최초로 '한국양파주간(Korean Onion Week)'이라는 해외 판촉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양파주간(Korean Onion Week)' 행사는 대만, 베트남, 홍콩, 미국 등 8개국 19개 매장에서 8월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주수출국인 대만의 대표적 할인매장인 까르푸에서는 대형매장 최초 130개 전채 매장에서 행사가 개최되며, 44개 대형매장에서는 판촉

요원을 통한 시식도 진행한다.

한국산 양파는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되면서 대부분 현지 식자재나 대형급식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 가정용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금년도 양파 수출량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한 1만 5천톤을 넘어선 1만 6천톤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양파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물류비 추가 지원과 해외 지사를 통한 거래 활성, 해외 홍보·마케팅, 바이어 현장세일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 분야 공무원 12명 대상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파키스탄 전력부, 과기부 등 에너지 분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적용' 국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

리, 관련 기술동향과 향후 전망, 국내 태양광, 수력발전, 현장 및 연구시설 견학 등의 주제로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수자원, 일사량, 가족분노 등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낙후된 전력 인프라로 인하여 전력부족을 겪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국내 에너지 기관과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사

를 중심으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원별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기술력과 파키스탄 파트너드 수력 발전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총주수상태양광 및 수력발전소, 발전통합운영센터 등의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및 대관령 풍력단지,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한화큐셀) 등 다양한 현장학습을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연수종료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교육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현업에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학습성과를 관리하고 국내 우수 기업과 현지연수도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삼교호 수질보호 정화활동 전개

아산시, 삼교호 제방에 쌓인 쓰레기 수거 등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3일, 인주면 문방리 삼교호 선착장에서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아산지회, 삼교호 내수면어업계, 인주면 주민자치위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교호 제방에 쌓인 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삼교호 제방의 낚시객 불법 쓰레기 투기, 삼교호 부유물 등을 생태환경 파괴 쓰레기 약 3톤 가량을 수거했다.

김성중 아산지회 회장은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 및 삼교호 수질보호를 위해 협회 회원과 삼교호 내수면어업계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수거활동과 생태교관생물퇴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6회 대전현충원 전국 웹툰 공모전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제6회 국립대전현충원 전국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전국 웹툰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주제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인물의 희생과 공헌을 알릴 수 있는 감동적 스토리와 우리 원 체험교육·자원봉사 체험 스토리 등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다.

작품은 10컷 이상의 완결 단편작으로 1인당 3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대표메일(dncs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입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발표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주의 당부

청양소방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빗길과 관련된 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가 비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갑자기 조향성을 잃는 '수막현상(hydroplaning)'이 발생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나빠진 시야와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노면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확률이 평소보다 약 30% 정도 증가된다.

이에 소방서는 장마철 빗길 차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빗길 안전사고 예방요령으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평소의 20~50%까지 속도를 줄일 것 ▲시야가 좁아져 평소보다 1.5배 이상 차간거리를 확보할 것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물가에는 주차를 삼가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청양=정성범기자



박천형 공주소방서장, 직원과의 면담으로 소통 강화 공주소방서(서장 박천형)는 자살예방 및 직원 격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 직원 대상으론 관서장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보훈청, 카파스튜디오와 함께 고품질의 국가유공자 장수사진 촬영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은 카파스튜디오(대표 강현미)의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장수사진을 촬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1대 보유

6월 말 등록대수 2천344만 대...친환경차 비중 2.3% ↑ · 증가 추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0%(약 24만대) 증가한 23,444,165대로 집계되어,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며, 1인 가구 증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소비자의 세컨드 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72814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배, 하이브리드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18.6월 8.9% → '19.6월 9.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2,177명('19.6월 10,380명) 대비 약 2.1배 증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중고차거래도 꾸준

한 증가('18.6월 1,305건 → '19.6월 3,343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트렌드 및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이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72814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배, 하이브리드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18.6월 8.9% → '19.6월 9.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2,177명('19.6월 10,380명) 대비 약 2.1배 증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중고차거래도 꾸준

한 증가('18.6월 1,305건 → '19.6월 3,343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트렌드 및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이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김용명, 제59대 공주교도소장 취임



공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공주교도소장으로 김용명 소장이 취임했다.

김용명 소장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 구현과 모두가 행복한 공주교도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명 공주교도소장은 1992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진주교도소 복지과장, 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교정기획과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이번에 공주교도소장으로 발탁되었다.

김용명 소장은 평소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상호간 화합하고 배려하는 신명나는 공주교도소를 만들 것 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0.47% 인하 결정

주요택 연료비 연간 946원 절감 효과 기대

대전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율 2.58% 인하에 이어, 올해 용도별 평균요금을 0.47%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가정용 난방 세대는 연간 946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그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45일간)까지 용역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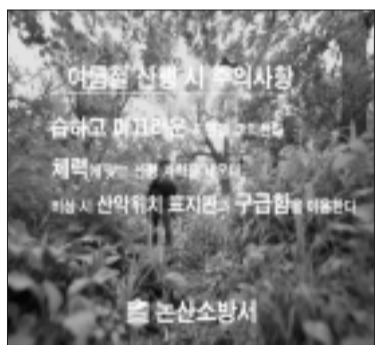
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 절차를 거쳐 산업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

율 산정기준에 따른 ① 판매열량 실적차이 ② 공급설비 실적차이 ③ 미공급의무투자 미이행 정산 등을 반영해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주택난방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산업부 산정기준에 따라 2019년 공급비용 산정시에는 ▲ 인건비 및 객센터 지급수수료 ▲ 배관 투자비 실적 사후정산 ▲ 판매열량 차이 정산(당초 ±3.0% → 변동 ±1.5%) ▲ 투자보수 가산금액 1.5배 미 공급지역 투자 의무 등에 따라 정산을 실시했다.

김태성기자

논산소방서, 더워지는 날씨 안전한 산행 주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를 피해 등산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안전한 산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 산행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지면이 습하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 실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산행 중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산행 중 어두워져 길을 잃고 119구조대에서 신고한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휴대용 랜턴이나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긴팔 등의 장비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편 산악사고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대문산 및 천호산 주요 등산로에 산악위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는 구급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비밀번호를 안내받아 구급함을 개방할 수 있다.

논산=김성규기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오는 26일 두경부암 무료 검진

세계 두경부암의 날 기념...24일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로 신청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은 2019 세계 두경부암의 날을 기념해 오는 26일 두경부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두경부암은 음식을 섭취와 관련된 구강 및 인두, 후두와 발생을 담

당하는 후두를 포함한 기생 위와 두 개저 아래의 모든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하며, 갑상선암을 포함해 구순암·설암·구강저암·편도암·인두암·침샘암 등이 있다.

한편, 무료검진을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24일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031-412-6879)로 접수한 후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로 방문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대전경찰청, 대전시 약사회와 범죄예방 업무협약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과 대전광역시 약사회(회장 차용일)는 15일 오후 3시 대전경찰청 대회의실(6층)에서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행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과장 차용일 대전광역시 약사회장,

이경기 약사회 부회장 등 약사회 소속 임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경찰에서는 공공 심야약국과 여성 1인 운영약국에 대한 긴급신고 시스템 설치 안내와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약사회에서는 지역경찰관서에 비상상비약 기부와 이동안전지킴이집 협조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황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에서는 범죄취약 약국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로 약사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약사회에서도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용일 약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 약국의 안전이 증대되기를 희망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사회도 경찰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응급실 폭력 추방 선포식'을 개최하여 의사회,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소방서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경찰 존립 목적 맞는 경찰활동 펼쳐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박종혁 총장(54·간부후보 42기·사진)이 15일 취임했다. 박 서장은 지난 1994년에 제 42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위에 임용된 후 2017년 충남청 경무과장, 충남청 부처서

장, 2018년 충남청 형사과장을 거쳤다. 박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 및 국민의 요구에 대한 신숙·공정한 처리 등 경찰존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동료 간에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서산소방서, 3W-119신고요령 홍보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행동요령이 담긴 '3W-119신고요령' 홍보에 나선다.

심정지 환자는 4-5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혈액 공급이 끊겨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고인의 침착하고 정확한 119신고가 중요하다.

3W·119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행동요령으로 '3W'는

"Where-위치를 정확하게, What-환자 상태가 어떤지 짐작하게, Wait-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 주세요"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 신고요령이고, 119는 "(1)1초에 2번 두손을 겹쳐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대고, (1)1원직선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이상 깊이로 압박, (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주세요"의 약자로 심폐소생술 실시요령을 나타낸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는 최초 발견자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에 3W·119를 기억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시보건소, 한국112무선봉사단과 자살예방 협약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7월 12일 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지부(지점장 이의순)와 자살위기에 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교수 10명 중 2명 '무늬만 교수'

전교노, 일반대학 전체 전임교원 중 19% 비정규직 교수

'무늬만 교수'로 불리는 비정년계열(비정년트랙) 교수가 일반대학 전임교수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임교수 10명 중 2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란 의미다. 이들은 정규직 교수의 절반에 불과한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전임교원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대학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비정년계열 교수들의 채용을 늘리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등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현황과 처우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온 박배근 서울대 교수(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는 "기본적으로 비정년트랙으로 전임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대학평가에서 교원확보를 산정 시 비정년트랙 교원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

원 운영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반대학의 전체 전임교원(5만1294명) 중 비정년계열 교원은 18.9%(9281명)를 차지했다. 대학에서 전임교수는 정년트랙(정규직 교수)과 비정년트랙(계약직 교수)으로 구분된다. 정년트랙은 채용되면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를 밟고, 정년 보장도 가능하다. 반면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승진·정년 보장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임금도 정년트랙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3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가 전임교원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학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왔다. 위대현 이화여대 교수(전국교수노조 정책실장)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신규 채용을 불허하고 이미 채용된 비정년계열 교원을 정년계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비정년계열 교원의 처우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학교별 장애인편의시설 증진 추진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원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규모 수선은 학교 예산, 구조적 변경은 지역교육청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720개가 설치 완료된 상태이다. 충남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80.2%를 상회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계단 리프트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교육청은 1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난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및 활용방법 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기구와 인식개선과 인권 이해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기준 ▲학교건물의 의무, 권장 설치 항목 기준 ▲세부설치 현황 조사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과 질의응답으로 담당자별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정환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wee센터, 고위험군학생 전문상담(교)사 워크숍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Wee센터는 지난 12일(금)과 13일(토)이틀에 걸쳐 공주한국문화예술원에서 논산계룡지역 전문상담(교)사 46명을 대상으로 2019 고위험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워크숍을 가졌다.



당진 서아중·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당진서아중·고등학교(교장 한계선)는 15일 정오에서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진 YMCA 청소년 사랑의 밥차의 협조를 받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태안대기초, 침과 느낌이 있는 1박 2일 캠프 태안대기초(교장권중기)는 지난 11일과 12일 1박 2일간 3~6학년 33명을 대상으로 학교 컨터에서 바다학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박 2일 캠프에서는 '침표그리고 느낌이 있는 바다학교'라는 주제로 저녁과 아침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만든 요리와 있는 아침을 수확해서 식사를 준비했다.



대전동대초, 교내 음악대회 실시 대전동대초등학교(교장 김영희)는 11일과 12일, 한울관체육관에서 전교생이 함께 즐겁고 어울려서 아름다운 교내음악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밝고 아름다운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급친구들과 함께 노랫말이 교운 동요를 부리며 협동하는 마음을 키워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추가 지정 공모 시행

15일부터 22일까지 공모하여, 8월 초 2개 지구 선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대전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4개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대상으로 공모하며, 자치구의 사업목적 및 조직 운영, 교육적 효과, 지역사회 발전,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 초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 2개 지구를 추가 공모하여 총 1억 6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기초지자체간 협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교육모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마을에서

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 주도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교육지구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공모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혁신정책과 616-860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마을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신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기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혁신과 학교지원센터 컨설팅' 실시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대해 연수 진행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지난 8일,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지원하는 학교혁신과 학교지원센터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

에서는 아산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센터 운영 상황 컨설팅, 학교혁신과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이해와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부는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상황 점검과 교육지원청 내 각과의 팀별 업무협조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조기성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지원을 위해 한 단계씩 발전하는 학교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찾아오는 컨설팅'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조성 위해 개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조성을 위해 15일(월) 교육지원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생활지도상임위원 및 사안처리현장지원단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오는 컨설팅'을 개최했다. 컨설팅은 생활지도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자, 생활지도실현 사례 발표와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토론회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사례발표는 삼은초 이종민 교사의 '미음결 가끔으로 행복의 문 열기', 천안동중 이미영 교사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천안두정고 실천국 교사의 '공생·공유·공감을 통한 기본 생활 정착 프로젝트' 주제로, 조·중·고 학교급별 생활교육 실천 사례를 안내하여 회복적 생활 교육을 위한 정보공유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토론회는 생활지도 교감 박근수를 좌장으로 현장지원단 4명이 함께해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처리의 단계별 절차와 사안별 대응요령을 정확하게 컨설팅 해주어 참석한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허 교육장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생활지도상임위원회의 역할의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추진과 회복적 생활교육 중심의 생활지도 실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 북부학교지원센터, 마을독서실 운영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조치원과 인근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독서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독서실은 조치원과 인근지역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북부학교지원센터(세종시 조치원읍 내장천로 48) 강의실을 개방하여 '마을독서실'을 구축한 후 58일간 총 204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학생들이 시험기간과 방학기간 동안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제공하고자 '마을독서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김태성기자

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독서실은 지역 주민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인력을 배치하게 되며,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세종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실 운영기간 동안 북부학교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가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독서실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북부학교지원센터(☎044-998-2950-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태성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교원 직무연수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에서는 지난 13일 홍성 관내 공·사립유치원교원 12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내년에 개정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비하여 교육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수로 한국교원대학교 김경철 교수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은 연수는 내년에 개정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비하여 교육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수로 한국교원대학교 김경철 교수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공주사대부고, 제2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습제 개최

공주대부설고(교장 백남용)는 제헌절을 기념해 제2회 법률 학습제를 개최했다. 공주대부설고는 작년에 이어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률 학습제를 개최했고, 한일고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전 심사에 통과한 총 6개 팀의 학생들이 학술 발표에 참여했고, 1·2학년 학생들이 참관했다. 학술 발표는 법률 에세이, 연구 보고서, 모의재판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률 학습제의 심사는 김진욱 변호사(공주대부설고 42기)와 공주대부설고 사회과 교사협의회에서 맡아주었으며,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의 질의 및 피드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본인들의 진로와 연계된 관련법들을 탐구해 발표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동 정 •

윤봉길 뮤지컬 제작발표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서 열리는 윤봉길 뮤지컬 제작발표회에 참석.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황선봉 예산군수는 16일 오전 10시 스포리스 리솜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충남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 30분 서울 마천 윤봉길기념관에서 충남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윤봉길의사 뮤지컬 제작발표회에 참석.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김석환 홍성군수는 16일 오후 1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15일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황선봉 군수, 이승구 군의회의장, 박근성 기업인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확대 개편해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이다. 특히 군청 안이 아닌, 주민 접근성이 높은 예산시장 2층에 상담실과 취업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전문 취업상담사 2명, 청년일자리 2명을 배치했다.

앞으로 군은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을 신속히 연결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탐방, 동행면접 등 다가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발굴하는 운영해 읍면 방문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좋은 일자리 발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충남도, 올해 110억 원 투입... 사업단 구성·센터 실시설계·장비 구축 등 박차

충남도가 지난해 에다 통과로 본래도에 오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어설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가진 제48차 심곡원장회의를 통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을 차세대 핵심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재편, 디스플레이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와 산업부가 공동 기획했다.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수행 중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차세대 OLED·플렉서블 등 핵심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 목표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융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차

세대 기술을 통한 초격차 확보 ▲ 혁신소재·공정을 통한 초저원가 실현 등이다.

혁신공정센터는 1651억 원을 투입, 천안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2913㎡ 규모로 건립한다.

이 센터에는 61종의 장비를 설치, 장비·소재 기업 기술 주제 발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기반FVID, 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R&D 분야에서는 3630억 원을 투입해 '비전공 기반 플렉시블 OLED방지막 형성 장비' 등 6개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2월 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부자심사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12개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장비 4종에 대한 발주를 준비 중이다.

다음 달에는 혁신인프라사업단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산업부 예산으로 986억 원이 반영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지사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는 558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충남은 국내의 54.3%, 세계의 23.2%를 점유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발표로 전례 없는 비상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최근 충남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워크숍에 참석, 충남디스플레이산업 기업협의회 CEO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과 비법을 들었다며 "이번 사태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제고의 대전환점으로 삼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도가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산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업하고, 산업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충남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높이고, 국산 소재·부품의 테스트베드로서 국산 장비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이행실적)를 쌓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

정 플랫폼이 계획대로 구축돼 가동하면, 정책적으로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 격차 5년·기술 격차 3년 이상 확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며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사업 기간 내 1618개 특허 출원·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3006명에 대한 임금과 비법을 들었다며 "이번 사태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제고의 대전환점으로 삼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도가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산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업하고, 산업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충남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높이고, 국산 소재·부품의 테스트베드로서 국산 장비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이행실적)를 쌓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계획대로 구축돼 가동하면, 정책적으로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 격차 5년·기술 격차 3년 이상 확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며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

U-20 국가대표 이광연 선수, 고향예산방문

"U-20 월드컵 준우승에 큰 역할"

U-20 월드컵 국가대표 이광연 선수가 15일 고향인 예산군 예산읍 예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환영을 받았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이날 군청을 방문한 예산군 신앙면 출신인 이광연 선수와 가족들을 만나 축하하고 '감사패와 자랑스런 어버이상'을 전달했다.

이에 이 선수는 현장에서 사인한 볼을 황 군수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선수는 지난 5월과 6월에 열린 FIFA U-20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전 경기를 풀타입으로 뛰며 대한민국의 골문을 굳게 지킨 준우승 신화의 주역이다.

황 군수는 "이번 U-20 월드컵 준우승에 큰 역할을 한 예산 출신 이광연 선수가 있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이 선수는

"강원FC 경기 입장을 소화하느라 뒤늦게 고향을 찾아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며 "고향인 예산에서 이렇게 큰 환영을 받아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같은 날 오후 12시 고향인 신앙면 대덕2리(이장 이인화) 마을회관에서 열린 환영 잔치에도 참석했다.

이번 잔치는 대덕2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선수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정성껏 마련한 행사로, 이 선수는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1999년 예산에서 태어난 이 선수는 예산중앙초등학교와 과천문원중, 김포동진고, 인천대학교를 거쳐 현재 강원 FC에 소속돼 있다.

김성구 기자

이동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만든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5일 시청 세종실에서 '이동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19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동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의 임기가 지난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 공모를 거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추진위원회 분과 위원들은 총 89명으로 ▲출산과 복지 ▲교통과 안전 ▲문화와 활동 ▲일자리와 공동체 등 4개 분과위원회에 소속해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전문가 1명, 현직종사자 1명, 일반시민 등 20여 명씩 구성되며, 오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분과별 정책 제안, 생활 속 개선사항 모니터링, 시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각 분과위원으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정책환경 분석, 정책문제 정의, 정책대안 도출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새로 위촉된 분과위원들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됐다"며 "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아동청소년 교육행정이 '청소년 세종시 방문' "정책 개발에 서로 협력 계기"

미국 뉴욕과 애틀랜타, 워싱턴DC, 시카고 등지에서 활동 중인 아동청소년 교육행정가와 청소년들이 아동친화도시 세종을 찾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미국 아동청소년 교육행정가 14명 등 미국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및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뉴욕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육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 아동청소년 교육행정가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및 교육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춘희 시장은 간담회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문화사업 등 다양한 미국 아동청소년 정책을 소개하고 워싱턴DC를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8.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도시"라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이 세종시와 미국 동부 지역이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에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DC, 시카고 등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20명이 세종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이 뉴욕 한국교육원의 한국문화캠프를 위탁 운영함에 따른 것으로, 미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이날 세종국제도사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아파트 건립 약 2배 증가 급속한 도시화

홍성군, 수출액 약 2배 증가 및 각종 통계수치 'UP'

홍성군이 아파트 건립이 두 배로 늘고 있는 등 가파른 도시화에 따른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이 국가통계포털 홍성군 통계에서 확인한 수치에 따르면 2013년 홍성군의 아파트 건립건수는 154개동 10277호에서 2017년 278개동 19608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 2013년에는 부재했으나 2017년 21층 44개동 4,194호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아파트 건립건수에 비해 미분양 주택 수는 40여 가구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급속한 감소추세다.

산업 및 농공단지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단지 수 및 면적은 2013년 9개 2,088천㎡에서 2017년 10개 3,366천㎡로 늘어났

다. 공장 가동률도 84%에서 92%로 증가했으며, 산단 내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1,765명에서 1,885명으로 늘었다.

수출액도 동기간 100.256천불에서 197,490천불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충남도청 수부도시의 위상도 걸맞은 물류거점과 기업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의 근간이라 일컬어지는 제조업 공장 수 및 종업원 수도 2013년 270개, 4,704명에서 2017년 323개소 5,151명으로 늘어나 홍성군의 경제체질이 매우 건강하게 바뀌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민 경제의 기본 통계인 도시가스이용현황도 2015년 16,666개소에서 2017년 22,656개소로 약 40% 증가했음이 나타났으며, 도

시기스 판매량도 2015년 9,884천㎡에서 2017년 14,626㎡로 급증했다.

반면에 쌀 생산 면적은 2014년 9,430ha에서 2018년 8,545ha로 감소했으며, 한우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57,460두에서 52,544두로 감소, 닭 사육 수는 3,835,013수에서 3,035,441수로 감소했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을 지정하는 친환경 축산농가 출하량은 2016년 15,612톤에서 2018년 18,257톤으로 증가해 친환경 축산의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서 급속한 성장세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분야별 정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Enfren tires featuring a woman running and a tire image.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and '가장 '리얼'스럽게 달리는 기술'.

동정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 = 16일 오후 7시 30분 푸르지오2차 아파트에서 열리는 공동주택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

제2차 본회의



김기재 당진시의장 = 6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4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최종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 =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태안중합설내체육관 시설설계 최종보고회'에 참석.

수련대회



김돈곤 청양군수 = 16일 오전 10시 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



온양2동 찾아가는 복지상담경로당방문

아산시 온양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과 더불어 2019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은 외부활동 제한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상담을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기 힘들었는데 더운 날씨에 경로당까지 동장이 직접 찾아와 목욕권을 나눠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양순 동장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목욕권 및 이·미용권 전달과 복지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행정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은 아산시의 특화된 노인복지 사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9개월씩 연 18개월 제공하며 아산시 소재 목욕탕 및 미용실, 이발소, 온천수치료 병·의원에서 이용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최초 지속가능발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당진시, 2017년 수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민·관 협력으로 고도화

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 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당진시는 15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민선7기 최상위 기조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했다.

오는 10월 완료예정인 이행계획 고도화 연구용역은 전부서의 현황

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 설정을 통해 각 부서의 대표과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민선7기 김홍장 시장 공약과제와 국·도정과제, 각 부서의 지속가능발전 대표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지속가능발

전 이행계획의 고도화 작업과 연계해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부서와 개인의 성과급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15일 보고회를 주재한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 시민활동가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당진시가 가면 길"이 되니, 전 부서의 시민들은 선구자적인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

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동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진시는 그동안 분야별 거버넌스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운영,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능발전 시민표어 공모, 시민사회와 소통확대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왔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벽증 등 11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고혈압, 대태 임신, 당뇨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

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된다.

또 18종 질환 중 조기진통 지원 기간도 입원 치료기간이 20주 이상 ~ 34주 미만에서 20주 ~ 37주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산모

로 19종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와 환자특식 등을 제외) 항목의 90%를 1인당 한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보건소의 의료 건강증진팀(940-4535)에 신청하면 된다.

청양=정성범 기자

출산여성 위한 농가도우미 서비스 추진

태안군, 최대 45일간 도우미 인건비 지원키로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출산에 대한 농촌여

성의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45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

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며,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생(예정) 증명서를 갖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농업인이 직접 선정할 경우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직접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촌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송악면 초복맞이 보양식 나눔 행사 열려

아산시 송악면은 지난 12일, 초복을 맞아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 보양식 나눔 행사 개최했다. 역촌2리, 마곡1리, 거산2리 마을은 보양식 나눔 행사에 동참해

각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마을주민들은 "정성이 가득한 삼계탕을 대접해줘 고맙다"며, "덕분에 이번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승만 면장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복날에 마을주민들이 다함께 보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감사하다"며, "지

진 심신을 달래고 기력을 회복해 다가올 한여름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면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구봉광산 폐광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청양군 남양면 구봉리 구봉광산 폐광지역에 희디흰 메밀꽃이 가득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정호)은 지난 6월초 1만6800㎡ 규모의 폐광지를 정비하고 메밀 종자를 파종했으며, 이후 한 달여 관리 끝에 이곳은 메밀꽃 향기가 하늘을 가득히 덮는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다.

이정호 면장은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잡초 투성이 불모지가 꽃향기 가득한 별천지로 바뀌었다"며 "내년에는 3만3000㎡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구봉광산 폐광지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체험관과 박물관, 금빛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개발 의지를 다졌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전산화 인지장비 도입



아산시치매안심센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전산화 인지장비와 재활운동기구를 도입해 다양한 재활운동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도 악화 방지에 나서고 있다.

센터 2기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치매환자 인지재활교실, 경도인지장애군 인지강화교실, 60세 이상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산화 인지장비는 각 교실 마다 주 1회 40분

으로 진행되며 개별 및 그룹 훈련을 통해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해 게임 형태의 흥미를 유발시켜 더욱 세분화된 인지학습으로 치매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경기에 도움을 주는 하지근력강화 장비는 교차진동을 통해 근력을 증진하고 노인의 낙상을 예방해 장기요양상태를 지연시켜 주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 대상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배운 즐거움도 느끼고 뇌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만족해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 점검 실시

태안군,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48개소 대상

태안군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8개소에 대해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놀이시설 현장에서 안전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전반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장애물 적재, 구조물 변경, 나사 풀림 등 시설물의 사고 위험 요소들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수리·교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후 이행 확인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시립합창단 지역 문화 발전 앞장

당진시, 창단 14년, 지역 문화예술에 단비가 되다

당진시립합창단(지휘 백경화)이 2005년 창단 이후 14년 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당진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립합창단은 지난 2016년 백경화 지휘자 취임 이후 연간 공연 횟수가 평균 60여 회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평소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골마을과 양로원, 병원을 비롯해 학생들을 위해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열다 보니 보니 자연스레 공연 횟수가 늘었다.

특히 합창단은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클래식 장르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대중음악도 들려주고 지난 6월 두 차례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처럼 다른 장르와 결합된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도 돋보인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러시아 야쿠츠크시의 초청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울라운데 국립오페라단과의 협연 공연을 선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한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성사된 당시 공연은 합창단의 활동범위를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창단의 역량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다.

백경화 지휘자는 "시골 마을에 공연을 가면 어르신들이 아시는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 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음악으로 소통하고 재능도 나누면서 시민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주민 직접 만든다

서천군, 읍면별 1억 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특화 사업 자체 선정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020년 서천군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올해 최초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방법으로, 군민의 참신하고 실제 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의 특색을 살려 읍면 단위로 공모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총 10억 원 규모의 군민 제안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총 1억 원 규모, 읍면별 1억 원 내에서 지역 특색에 맞으며 주민 수요도가 높은 현안 사업을 읍면에 직접 발굴하고, 읍면별 주민자

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제출하면, 10월 중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군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추후 읍면별 사업 계획서,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제안사업 공모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예산에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읍면의 특색을 살리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룡시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계룡시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며 전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각 기관단체, 학교는 물론 마을방송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태극기 달기를 적극 홍보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는 시내 주요 도로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또 전광판, 홍보유인물, SNS 등을 통해 태극기 바르게 다는 방법 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도 평화를 염원하는 2020계룡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게양에 동참하게 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과 엑스포 성공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은 7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바라볼 때 주막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시 전역에 태극기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유)만금 투자협약 체결

자동차 트레일러·철강 제품 제조사와 44억 상당 협약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2일 서천군청 집무실에서 (유)만금(대표 김대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종천제2산업단지내 44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2021년까지 총면적 5,622㎡ 규모의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서천군 거주자를 우선 채용토록 적극 노력하고, 군은 기업이 공장 건립 및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우리 군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감자·양파 소비촉진 동참

일주일간 감자 450kg·양파 160kg 소비로 농민 돕기 나서
천안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와 양파 생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감자·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천안산(産) 감자 450kg, 양파 160kg을 준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을 감자와 양파 소비촉진 주간으로 정하고 전량을 소진하기로 했다. 평소 시는 감자와 양파 각각 50~60kg 정도 소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식사 대용으로 쪄 감자 700여개를 구분영 시장 등이 직접 시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일주일 시청 구내식당 점심메뉴를 감자수제비국, 감자조림, 감자들깨탕, 감자샐러드, 버터 구운 감자, 양파 장아찌 등 감자와 양파를 이용한 음식으로 구성해 농가지원 및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시는 앞으로도 감자와 양파를 주재료로 하는 반찬의 비율을 평상시보다 대폭 높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구분영 시장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시청 직원들이 농민의 고통을 이해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양파와 감자 소비촉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논산시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마을을 16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 3회 의료취약마을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실시해 총총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편, 내과의사·한의사 진료, 상담 및 한방침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해 마을회관에 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회 이상 가정 방문하는 등 사업 대상 마을 주민 모두가 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 우울검사를 통해 검사 이상자 발견 시 해당부서로

"찌는 듯한 폭염, 그늘막에서 쉬었다 가세요"

부여군 폭염대비 그늘막 11개소 설치...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도심지의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성 및 횡단보도 주변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파라솔형 그늘막 11개소를 설치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그늘막의 크기는 지름 3m로, 자외선율 90% 이상 차단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재질의 원단으로 구성되어 무더운 여름에 신호를 대기하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군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그늘막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 우울검사를 통해 검사 이상자 발견 시 해당부서로

천안시 청수도서관 '아트리움에서 색을 읽다'

계절에 어울리는 색 선정해 관련 도서 제안하는 북큐레이션 진행
천안시 청수도서관(관장 박상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부터 컬러 북큐레이션(Book Curation) '아트리움에서 색(色)을 읽다'를 운영한다.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에 맞

조를 배상보험도 가입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며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동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폭염 저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규기자

쾌적한 도심환경 위해 클린논산매니저가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논산매니저 47명과 활발한 활동에 나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달 도심환경 개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불법주차차,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클린논산 매니저를 모집해 적극적인 환경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도심 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불법주차차 등이 고질적인 생활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클린매니저의 총총한 감시 활동을 통해 각종 생활불편사항 및 안전위험요소 제거는 물론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매니저 활동을 지켜본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차츰 해결해나가면서 도심환경이 깨끗하

역사와 신문을가시를 같이 비치해 이용자들에게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트리움 서가에 전시되는 책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자료실, 영어자료실, 종합자료실에서 대출처리 후 빌려 갈 수도 있다. 청수도서관 관계자는 "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은 도서관에서 즐겁게 배우며 놀아요"

계룡시, 여름 독서교실, 한자특강 6개 강좌 마련
계룡시 공공도서관(계룡, 염사)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독서교실과 우리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자 학습을 통해 국어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자 마련했다. 계룡도서관은 오는 25일부터 초등학교 1~5학년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그림책토론', '오감 책놀이'와 부수를 활용해 60여개 한자를 익히는 '한자야 놀자' 강좌를 진행한다. 또한 염사도서관은 29일부터 초

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책과 함께 바다로 풍덩'과 한자교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하는 사자소학'을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교육과 함께 주제를 정해 관련 책을 읽고 인형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자교실은 한자의 어원, 역사, 문화, 효행, 우애 등 인성교육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여름방학 특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6일부터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yeyong.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042-840-3603, 3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통정
시민과 대화의 날

구분영 천안시장= 16일 오전 10시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에서 펼쳐지는 천안시(시장)의회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

여성대회
황명선 논산시장= 16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논산시 도서관 운영위원 위촉식 참석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논산시 여성대회 참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16일 오전 9시 부여 노인대학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에 참석.



부여군 세계유산에 불 밝힌다

정림사지·부여 나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여 정림사지와 부여나성에 세계유산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정림사지 경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정림사지 오층석탑 주변의 조명은 석탑 관석에 의한 음영 대비를 최소화하여 상단, 하단을 구분해 석탑의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관람동선을 따라 따뜻한 색감과 은은한 광량의 보행조명을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했고, 담장 아래 슬림한 Bar(막대)형 LED조명기구를 연속 배치하였다. 그리고 정림사지 연지 및 경내·외 수목에 평온하고 안정된 야간 투광조명을 설치하였다. 또한 부여 동나성 산지형 구간에 성곽 투광조명 238개를 설치하여 성곽면을 고르게 밝히고 동시에 야간 방문객들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광을 가진 조명기구로 연출하였다.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야간 경관조명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점등된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통정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유구읍, 오후 4시 30분 신관동을 방문해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불법 광고를 일제정비



맹정호 서산시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솔빛공원에서 열리는 여름휴가철 대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참석,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4회 서산시의회 개최식에 참석, 오전 11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산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오후 3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서산사랑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식에 참석.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



문정우 금산군수는 16일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서산시 평생학습 실무협의 기반 구축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체계 실무협의 기반 구축'을 위한 2019년 서산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의는 서산시 20개 평생학습기관·단체의 팀장급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평생학습사회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희수 원장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서산시 평생학습 현황 설명을 듣고 향후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정보공유 방법 등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생학습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체계 실무협의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현경 서산시 부시장은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기관·단체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생학습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서산시의 평생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청소년 교류 '성공적'

학생 20명 금산 방문, 학교 정규수업 과정·홈스테이 등 체험

금산군은 말레이시아 REAL교육그룹과의 지속적 교육협력 및 교류를 위한 MOC를 지난 1일 체결하고 리얼 국제학교 청소년 교류단과의 첫 번째 교류를 12일 무사히 마쳤다.

리얼 국제학교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교류단은 11박 12일(7.1~7.12)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 관내 학교(3개교/금산중, 금산여중, 금산동중)의 정규 스쿨 필드 체험, 주말 문화체험 등 양국 학생들끼리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같이 머물면서 우정과 기쁨을 함께 해 더 큰 추억을 남겼다.



지난 11일(목)은 관내 중학교 정규수업 과정을 무사히 마친 리

얼 국제학교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수료식을 개최, 소감발표와 축하 공연 등 수료생과 관내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 리얼 교육그룹 관계자는 이번 리얼 국제학교 학생들의 방문 중 특히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금산군 가정의 진심을 나누는 모습에 좋은 추억과 감동을 가지고 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말레이시아 리얼 국제학교와 함께 한 이번 교류가 금산군의 청소년 국제 교류의 큰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여름 밤의 꿈' 18일 개최

공주시 충남교향악단(단장 손권배)이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78회 정기연주회 '한여름 밤의 꿈'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마스터피스 시리즈 열아홉 번째 무대로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 손민수를 초청, 클래식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곡으로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차이코프스키의 '봄의 왈츠', 모차르트 '환상 서곡',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을 연주해 감동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2006년 캐나다 호브스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독일 11개 도시 순회공연과 미국, 캐나다, 중국, 이스라엘, 유럽 등 초청공연으로 청중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를 역임한 후 201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 입장료는 A석 1만원, B석 5천원으로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권은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http://acc.gongju.go.kr)에서 예매 가능하다.

기타 전화 예매나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041-856-0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드림스타트 2차 부모교육



금산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3일 청산회관 8층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 9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각변화연구소 현정아 소장이 '영화로 만나는 행복가족'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강연하며 호응을 높였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가족애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예-만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우리/동네

제5회 보령미술해(海)를 품다 전시회 20일부터 개최

지역미술 새 패러다임 모색



보령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5회 보령미술해(海)를 품다' 전시회를 연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보령지회(지회장 한기정)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지부장 김부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미술문화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지역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와 서양화, 문인화, 공예, 서예, 판화, 조소,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136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른 지역 문화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자아와 실존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 답을 찾는 삶의 하브루타 시간을 가지며, 보령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욕구를 충족시키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권 지부장은 "올해는 제22회 보령머드축제에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축제 기간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공주시,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단 80여 명 방문

지역 문화 및 전통 체험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단이 공주를 방문해 지역 문화 및 전통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세종YMCA가 주관하는 이번 모국연수 프로그램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등 20여 개국 80여명의 대학생들을 비롯해 국내 대학생 및 관계자 60여명 등 총 140여명이 방문했다.

재외동포 대학생 80여명은 공주 방문 첫날 한옥마을과 공산성, 계룡산도예촌, 효심공원, 공주역사박물관, 풀꽃문학관, 황새비위 천주교순교유적 등 공주의 명소를 탐방했다.

이튿날 산성시장에서 펼쳐진 친교 나눔 행사에는 재외동포대학생들 비롯해 관계자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크리에이션 및 나라별 장기자랑, 버블리움대 '아비멘트'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지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장을 직접 찾은 김정섭 시장은 "연수단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간 외교사절들이라고 생각하고"며, "공주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고 돌아가 대한민국과 공주시를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사) 보령시자원봉사센터

한국해양구조단지역대 방문

사) 보령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센터장 우준영) 지난 13일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맞추어 안전하고 안심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재난재해전문자원봉사단(한국해양구조단보령지역대)에 방문하여 정우진 대장의 설명으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방법 등 교육을 받고 인명구조활동에 긴급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트스키를 타는 체험을 함께 했다.

또 우리는 가족봉사단은 한국해양구조단보령지역대를 방문하기 전 샌드위치를 만들어 과일과 음료수를 함께 넣어 만든 간식키트를 전달, 해양구조단보령지역대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우준영센터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안녕 리액션" 캠페인에 맞추어 가족봉사단 안전 캠프, '잠시 멈추세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위한 전국 자원봉사 공동행동이 슬로건이다.

보령=김정미기자



제22회 서산국화축제 준비 착착

국화축제추진위원회 회원 등 150명 참석해 국화식재 지원봉사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제22회 서산국화축제 준비가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서산시 고북면(면장 이은건)에서는 15일 오전 6시 고북면 기포교차로 부근에서 '고북면 기관단체 국화식재 지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22회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북면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자원봉사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최준만 국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고북면 15개 기관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은 구슬땀

을 흘리며 고북면 진입로인 기포교차로 부근 도로변에 국화 4만주화단국을 식재했으며, 국화식재와 함께 도로변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이날 식재한 국화는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만개할 예정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도 제22회 서산국화축제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에 서산시 공무원,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대산고등학교, 서산동그라미가족봉사단, 오산자원봉사센터, 고북 관내 기관단체 등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발

돋움하고 있다.

국화심기에 함께한 맹정호 서산 시장은 "국화축제는 고북면 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고북면민과 각 기관 사회단체 회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서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제22회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북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서산시의 꽃인 국화를 재배하면서 시작되어 올해 22회째를 맞는 서산국화축제는 2년 연속 충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시 제5회 도심 페스티벌 '도시樂' 개최

오는 20·21일, 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일원서

보령시는 오는 20일과 21일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제5회 도심 썸머 페스티벌 '도시樂(락)' 행사를 개최한다.

보령중앙시장상인회(회장 김일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 보령머드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문화이콘 창출을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오후 1시 남포초등학교 밴드팀 등 4개 팀의 락 페스티벌 ▲오후 2시 시민 화합 노래자랑 ▲오후 3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 ▲오후 4시 민속악단 새넛의 마당극 특별공연 ▲오후 5시 개막식과 지역문예팀 공연 ▲오후 7시 30분부터 인디악밴드 수향과 조대가수 정수라 공연 ▲저녁 9시 할리퀸과 각설이 양재기, 진이 등 아시안 공연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오후 2시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오후 3시 주민자치 페스티벌 ▲오후 4시 전통시장 보물찾기 ▲오후 6시 상인 노래자랑 ▲오후 7시 폐막식 및 초청가수 민지희의 축하공연 ▲오후 9시 아시안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밖에 체험행사도 페이스페인팅과 수공예 체험, 에어바운스 등 키즈 존, 전통놀이 및 보부상 체험을 운영하고, 부대행사로 장보기 런닝맨, 전통시장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북구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만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조성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실질적 소비활동을 증가시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조성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실질적 소비활동을 증가시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상미는 상원에게 급회를 내보내라 하고, 석호는 원준이 급주와 키스하려는 걸 보게 된다. 한편 준호는 자신을 몰래 찍고 있던 대성을 발견하는데...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20분)

박진우·신다는,이대로 헤어지게 되나?! 결국 만수와 수진에게 행복할 제니. 은석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큰 희생을 감수하기로

케이블 명화

▲신세계 (OCN 오후 10시00분)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경찰청 수사 기구와 강과장(최민식)은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딸드몬이 기업형 조직으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신임경찰 이자성(이정재)에게 잡임 수사를 명한다. 그리고 8년, 자성은 골드몬의 2인 지이자 그룹 실세인 정창(황정민)의 오른팔이 되기에 이른다.

골드몬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과장(최민식)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후계자 전쟁의 한 가운데, 정창(황정민)은 8년 전, 고향 여수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온 자성(이정재)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인다.

"약속했잖습니까...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한편, 작전의 성공만 생각하는 강과장(최민식)은 계속해서 자성(이정재)의 목을 조여만 간다. 시시각각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자성(이정재)은 언제 자신을 배신할 지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로 대하는 정창(황정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결심하고 각서에 서명한다. 한편, 제니의 희생으로 경찰서를 나온 은석은 자신의 무기력함에 극도로 분노하는데...

▲태양의 계절 (KBS 오후 7시50분)



<선물> 광일은 시월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숙희네는 시월의 임신 소식이 달갑지 않다. 한편,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덕실은 태양에게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아이언맨2 (채널CGV 오후 7시50분)

자신이 아이언맨이라고 정체를 밝힌 뒤 할리우드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던 토니 스타크. 스타크 인터스트리의 운영권을 수석 비서였던 페퍼포츠에게 일임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생애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다.

'스타크' 가문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윌플래시'가 아이언맨 수트의 원천 기술인 아크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 것. F-1 그랑프리에 출전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토니 스타크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윌플래시. 이에 토니 스타크는 새로 개발한 업그레이드 수트를 이용, 겨우 위기를 모면한다.

하지만이 사건을 계기로 윌플래시는 토니 스타크의 라이벌 '저스틴 해머'와 손을 잡고 아이언맨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에 토니 스타크는 오랜 동료 제임스 로드를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수트를 제작, '워 머신'으로 거듭나 그와 함께 강력해진 적들과의 본격적 대결에 나서는데...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2:50 에이리언2 5:40 비정규직 특수 요원 8:00 수어사이드 스퀴드 10:20 WATCHER(왓쳐) 13:00 다크아워 14:40 수상한 그녀 17:20 미이라(2017) 19:40 매트릭스:분노의 도로 22:00 신세계

-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 2018 클루왕스 컨티넨탈컵 15:00 <당구스페셜> 2018 클루왕스 컨티넨탈컵 17:00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19:00 18-19 프로농구 CLUTCH TIME 19:30 18-19 SKT 5GX 프로농구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라인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들의 시사탐방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송 10:00 MBC MUSIC HIT SONGS 12:10 쇼 음악중심 13:30 언더나인틴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청각의 신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7:10 M morning 8:00 썬바디 9:50 2018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10 썬바디 스페셜 13:40 MFD Music Tak(SNS/메신저) 14:3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18:00 썬바디 스페셜 19:30 Daily Music Tak(SMS) 20:20 2018 MAMA PREMIERE in KOREA 23:00 인싸체널 체리블렛

- SBS 스포츠 11:00 2018 AFF 스타컵 하이라이트 12:00 2018 아시안게임 14:00 2018 LG U+컵 3쿠션 미스터스 15:40 2018 AFF 스타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남자부 18:00 주권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남자부

- 한글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 830 10:00 중시 라인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중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에감 부동신 채테크 18:00 생방송 부동신 컬링 19:00 보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오뉴스 지구팔구 21:30 대박한국

- 애니맥스 6:00 바이블론스 5 7:00 아슬아슬한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11:00 유우와 친구들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환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 헌터 13: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4:15 이주의 법칙 14:45 잡채지 계획의 사자와 악어 15:45 인도호랑이 쿠밀의 여정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0 <BEST PICK> 지니어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제11회 박세리배 전국 초등학교골프대회 개막

16~17일, 유성컨트리클럽서 17개 시도 200여명 참가

'제11회 박세리배 전국 초등학교골프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유성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대전시체육회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이 주최하고 대전시골프협회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골프 꿈나무 2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박세리배 전국 초등학교골프대회'는 2007년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박세리 프로를 기념하고, 골프 꿈나무 발굴을 위해 2009년 우리 시가 만든 대회로 올해로 11회를 맞는다.

대회는 15일 하루 공식연습 후, 4개부*로 나뉘어 16일부터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 의한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1~4학년 남(기린부), 여(청학부) / 5~6학년 남(항풍부), 여(불새부)

대회 개최결과 우수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주니어상비군 포인트가 부여되고, 각 부별 1위에서 3위는 우승컵이 수여된다.

특히 시상식에는 박세리 프로가 직접 방문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제2회 박세리배 꿈꾸는 골프 꿈나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우수 선수들이 참가한 만큼 개인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제3회 아산문화상

전국 공모전



아산시청 하키팀, 대학·실업연맹회장기 전국하키팀대회 우승

제62회 전국중별하키팀선수권대회 우승 이어 전국대회 2연패



아산시청 여자하키팀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국제하키팀경기장에서 열린 '2019 대학·실업연맹회장기 전국하키팀대회'에서 지난날 '제62회 전국중별하키팀선수권대회' 우승이 이어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는 총 5개의 실업팀이 참가, 리그전으로 진행해 승점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다.

아산시청 여자하키팀은 지난 7일 첫 경기에서 목포시청을 상대로 2대0 가파르게 이기고 13일 4차전에서 평택시청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해 4전 3승 1패, 총승점 9점을 획득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개인상으로 ▲감독상, 임흥

신 감독 ▲지도상, 홍경섭 코치 ▲최우수 선수상, 홍미라 선수 ▲최다득점상 조혜진 선수가 수상했다.

한편, 아산시청 하키팀은 2016년부터 개최된 제97~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한민국 여자일반부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세대교체를 통한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한층 더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울러, 이번 대회로 하키팀의 메카도시, 스포츠 선진도시 아산의 위상을 전국에 다시 한번 그 명성을 알린 아산시는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전국체전 하키팀부분 전종목을 유지를 했다. 현재 국제수준경기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아산하키팀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하키팀경기장의 이전과 우수한 전력을 보유한 만큼 전국체전 4연패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리랑주기자

한국문인협회 아산시부에서 '제3회 아산문화상 전국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가 지원하고 아산문화재단과 아산문인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아산에총이 행정 업무 협조를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총 상금 천 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3편 수필3편 소설1편 평론1편으로 총 8편의 당선작품을 뽑을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 당선 작가들에게는 등단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당선작품은 한국문인협회 아산시부에서 발간한 '아산문학'에 게재하고 응모작은 아산문화재단과 아산문인협회에 귀속된다.

민수영 아산문인협회장은 "아산문화상 공모전이 미 당선 작가들의 대응적인 만큼 전국의 재능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품 소재의 참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아산지역은 총부광 이순신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난중일기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순신을 주제로한 작품에 대해서는 +1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공모전으로 난중일기에 버금가는 창작품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아산을 널리 알리며 나아가 이순신의 정신을 일깨워 보자는 취지이다.

작품 응모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이며 메일(asanwriter@naver.com) 접수만 가능하다. 응모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아산예총 홈페이지 등 아산문인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랑주기자

2019년 하반기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올버니 도서관 이용 안내 및 독서체험활동 제공

세종평생교육학습관(관장 정영권)은 유아와 어린이의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해 운영하는 '2019년도 하반기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에 참여기관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세종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도서관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형과 열람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형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및 책놀이 프로그램 ▲도서관이용방법 및 예절교육으로 진행되며, 열람형은 ▲자율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동화구연 및 책놀이 프로그램의 경우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의 재능기부 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재능기부 활성화와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7월 15일 9시부터 세종평생교육학습관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담당자(☎044-410-1441)와 일정을 조율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세종평생교육, 044-410-14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김태성기자



천안유농농원 블루베리 따먹기 성료 충남천안 북면상동리 유농농원(대표유병기)은 오픈3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무료 따먹기 행사를 진행해 1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리에 종료했다.



건강증, 외국인 친구와 함께하는 'We are all one' 행사 성료 건양대학교 병설 건강중학교(학교장 김민중)는 국방대학교 양촌 이전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 입학함에 따라 외국인 학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오후에 다문화소개의 날 행사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We are all one'>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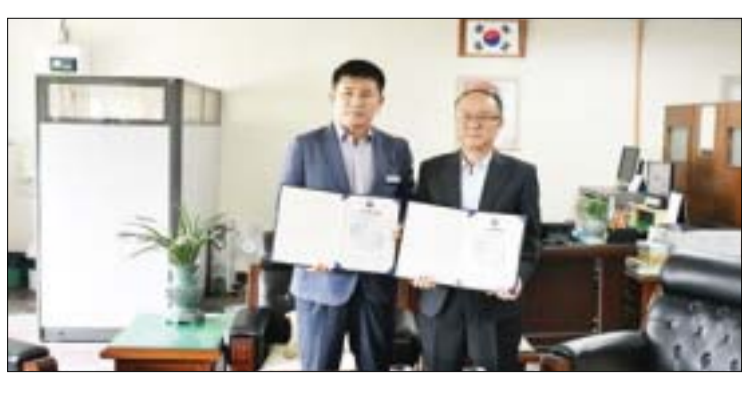
한국영성대학교, 해군 대상 '군악대' 위탁교육 성료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은 지난 12일 해군 장교 및 부사관대상으로 음향 및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현대차 (주)서산남부현대서비스, 저온저장고 기증 현대자동차(주)서산남부현대서비스(대표 최태)에서 15일 지역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재료를 보관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 기증해 화제다.



온양성결교회, 어르신 섬김잔치 열어 아산시 온양성결교회는 지난 11일, 온양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온양동어르신 섬김 초청잔치를 열었다. 어르신 섬김 잔치는 온양성결교회 신도들이 어르신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에서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는 행사다.



대전보훈청-둔산초교와 우리지역 현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대전지방보훈청 이순규 보호과(오른쪽)이 15일 대전둔산초등학교 황오의 교장(왼쪽)과 우리지역 현충시설인 대전지구전투 호국영웅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 · 중국 생활가전 대기업 미데아社, 인턴쉽 협약

글로벌 디자인 인재양성 '스타트'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산업디자인학과가 중국 생활가전 대기업 미데아(MIDEA)社와 인턴쉽 협약을 맺고 지도교수 2명과 학생 6명이 중국 우시(WUXI)에서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디자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인턴쉽 프로그램은 호서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 특성화 및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데아 인턴쉽 프로그램'은 2016년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와 미데아社의 공동제안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7년에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와 서울대



가 참여한다. 현재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세계 3대 국제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컨셉디자인부분 랭킹에서 세계(아·태 지역)랭킹 5위

(2017년 기준)를 랭크하고 있으며, 미국 SPARK디자인 공모전에서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2018년 3번째 최고상인 대상 작품을 배출할 만큼 다수의 국제디

자인 공모전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받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백정훈 학교장은 "미데아社뿐만 아니라 중국의 디자인 명문 장난대학교와 생활가전기업 JID社 또한 MOU를 맺어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리바바, 필립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협약을 넓혀 학생들의 해외 취업 도전을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2년까지 졸업생의 10%를 해외 활동 디자이너로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산=리영주기자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도모

'6월의 충남 기여인 선정' 격려 시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는 15일 본부 청사에서 세종·대전·금산지사 김동욱 과장 등 5인을 6월의 '충남 기여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충남본부의 공헌하다는 뜻의 기여(寄與)와 공정을 의미하는 충청도 사투리 '기여'의 중의적 의미 가지고 있는 '기여인'은 지난 6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며 청렴한 업무수행, 현장안전관리 분야에서 모범직원을 발굴하여 먼저 알아주고 칭찬하는 제도로 충남지역본부는 매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충남 기여인'으로 선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전 직원 투표와 기여인 발굴위원회 심의결과를 합산하여 6월의 기여인으로 선정된 김동욱 과장은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 모두가 '충남의 기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뽑아준 결과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며 기여인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종필 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열악한 현장여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충남 기여인 선정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한서대,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2019 하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한서대의 대표적인 해외 봉사프로그램인 "2019 하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발대식이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해외 봉사 참가학생과 지도교수 42명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에서 합기선 총장은 "현지주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립심을 심어주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라"고 당부했다.

7월 16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봉사단 15명은 10일간 자매대학인 가자마다 대학(Gadjah

Mada Univ./두타와짜나 대학(Duta Wacana Christian Univ.)의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7월 22일 인도를 출발하는 13명의 봉사단은 10일간 자매대학인 키트대학(KIT University & KISS)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22일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14명의 봉사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 대학(Northwest Univ.)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민소득증대사업, 장학금 지급, 한류 문화보급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산=김정희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오는 21일 일요일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원장 나성일)는 평일에 건강검진이 어려운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위해 오는 21일 일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번 일상으로 인해 평일에 건강검진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및 지

역주민들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검진은 오전 7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로 사전 예약에 한해 실시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연령별·질환별 특화검진, 전문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042-532-989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병배기자

제55대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 열려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세무행정을 펼쳐나기야 한다"



제55대 한재연(韓載連) 대전국세청장은 15일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세무행정을 펼쳐나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지방청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우리는 모두 어느 때와 다른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자세로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및 간편 납세 서비스도입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능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징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우리는 모두 어느 때와 다른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자세로 새로운

● 동정 ●

워크숍



유영숙
대전시
새마을
부녀회
장 =
= 16일
오후 2시부터 서구청 2층
대강당 정윤기 행정부시장,
윤용대 시의회부회장, 설봉
호 대전교육감, 박경수 시
새마을회장 등 구 및 동 새
마을부녀회장, 부회장, 총
무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생명살림운동 실천을
위한 '2019 구·동 새마을
부녀회 임원 워크숍' 개최.

유병희 부여경찰서장

"군민 인권 최우선 가치"



총
남
부
여
경
찰
서
유
병
희
서
장
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유 서장은 이날 취임사
에서 "안전한 부여를 위
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
한 빈틈없는 '공공체 울
타리'를 만들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고 말했다.

국립공주박물관,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개설

"여름박물관교실"과 "박물관 1박2일 여름방학 캠프"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진우)은 여름방학기간 어린이들이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박물관교실"과 "박물관 1박2일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한다. "여름박물관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아름다운 백제꾸미개',

'도자기 속 물고기 이야기'의 주제로 7월 30일과 8월 6일 2회 차 운영한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문화재를 관찰하면서 통합적 교육 방법으로 문화재를 체험하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물관 누리집(https://gongjumuseum.go.kr)에서 7월 16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로 참여가능하다.

"박물관 1박 2일 여름방학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무명왕 이야기'를 주제로 8월 12일 ~ 8월 13일 1박 2일에 걸쳐 운영한다.

백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무명왕과 무명왕릉 출토품에 대해서 전시품 관찰, 퀴즈대회, 그림자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몸동선 놀이, 영화 감상 등 즐거운 놀이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무명왕릉에서 출토된 문화재 앞에서 자는 히트밤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공연예약 누리집(https://tickle.yes24.com)에서 7월 23일 10시부터 선착순 예매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칼럼

여름철 건강, 수분 보충이 핵심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갑갑하게 내리쬐는 여름철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시작됐다. 바캉스나 여름방학이 맞물리면서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체내(體內)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2.5L의 수분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0.5L 정도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가 되므로 하루 2L 정도의 물은 따로 섭취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목욕을 한 후에는 체내의 수분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급

하게 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은 누구나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만성 탈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마신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주어야 한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 고혈압이 더 심해진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일수록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제 중에는 이뇨제가 포함된 것이 있는데,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손실되므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체내 수분 부족 시, 주요 장기에 우선으로 수분을 전달해 말초혈관 쪽에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고혈압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증가해 체내 수

분 부족이 혈액순환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무더운 여름철이냐말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아 입맛을 잃기가 쉽다. 이럴 때는 입맛 도는 여름철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오이를 먹으면 기력 및 수분 보충이 되며, 비타민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이뇨 효과가 탁월하며, 부종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 열에 지친 피부에 오이를 붙이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고, 오이무침, 장아찌, 소박이 등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토마토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매우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매우 좋으며, 토마토에 설빙을 뿌리게 되면 맛은 있지만 토마토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다 죽게 되어 설빙을 뿌리지 않고 먹는 것을 권장한다. 토마토의 겉껍질은 소화기 잘 안되므로 꺾는 물에 살짝 데쳐 벧

저낸 뒤 섭취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다보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피마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냉방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옥수수는 수분대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물을 많이 먹어 생기는 여름철 부기를 빼는 데 효과적이며, 옥수수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메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가지는 수분량이 많고,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좋다. 피로회복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형성을 돕고,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단 몸이 찬 사람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요컨대 '지해가 아닌 세속적인 지식을 쌓아 교활한 사람들이 감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면 아무것도 다스리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도덕경이 생각난다.

사설

최저임금인상안, 아쉽지만 수용해야

심각한 갈등과 진통 속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8천500원으로 최근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회의를 열고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위원회 측이 내놓은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40원(2.9%)오른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첫해인 2018년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는 10.9%였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가 말해주듯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는 컸다.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임금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 인상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났다' '노동존중 정책,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위기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사용자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공멸이라는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야당을 비롯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조

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이 분명 노동자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절대적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저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싶어도 이를 부담해야할 경제주체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성도 감안했음은 물론이다.

결국 바람 끝에 물렸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결정이 있었다. 아쉽겠지만 노동계 역시 위기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톤 큰 양보를 통해 사용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양측을 지탱해 한국경제를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내년 한해 양보와 희생이 뒷받침된 경제 활력이 현실화된다면 2021년 임금협상에선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사용자측의 결단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시장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노선은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논란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 모두가 힘을 더해 앞만 보고 가기도 지금 우리경제엔 압축과너무 많다.

수출규제 사태 더 이상 악화 막아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수출규제 사태가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은 볼 때 사태 장기화 가능성마저 농후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한일 관계가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야욕과 정치적 상황에 의해 악화일로를 넘어 회복 불능 파국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 국민에 갖는 호감 여론이 12%로 떨어져 199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양국 갈등이 고조돼 파국 상황으로 치닫는 일은 한일 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섭이 전제되어야 함은 기본상이다. 그럼에도 일본 당국은 이번 사태를 풀고자 방만한 우리 실무단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저질함을 보임으로써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양국을

쌓고 있다. 이런 푸대접과 무시 전략은 철저하게 계산된 아베 정권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자칫 흥분하면 일본의 의도에 밀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 언론,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면서도 이성적인 대처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서 외교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이달 말 대표단 방일을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을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 대외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무역 보복카드를 꺼낸 만큼 일본 측이 당장에 협상에 응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양국의 정부, 위정자, 양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나서 사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아베 정권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기고

여름철의 불청객(不請客) 성범죄 조심하자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원ભ

에 혼자 기거하는 젊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 놓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성폭력 관련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국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율바른 성문화의 정착 및 건전 성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안전한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원ભ에서 주방의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반

정도만 열리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노출의 계절이라 하여 지나치게 여성의 섹시미를 강조하는 것은 성 관련 범행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노출은 삼가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혼자 산책하거나 자신의 몸을 잘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과음 등은 범죄자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노출이나 음주가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안전수칙이 강

조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동반하게 하는 범죄라 많은 범죄가 신고 되지 않고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연인간 페이트폭력으로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게 더 수직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더 이상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日 의도 성공 못해… 日의존 벗어나 국산화 길 걷고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례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 나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를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 금강여울축제, 강촌정취 전하는 강변축제 자리매김



지난 12일부터 2일간 개최된 금강여울축제가 다채로운 체험 행사 속에 관광객 5000 여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금강여울축제는 강촌의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물’ 체험 콘텐

츠가 확대되면서 여름철 가족이 즐기는 강변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나뭇배 체험 및 다슬기 잡기 체험과 어린이 ‘물’ 체험은 무더운 여름

날 강바람의 시원함과 체온의 재미가 보태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금강변 시골길을 따라 떠나는 경운기 투어와 금강여울열차, 여치집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은 관광객

에게 이련한 농촌의 추억을 선사했다.

여기에 넉넉한 시골의 인심을 담은 열무국수, 울강이해장국 등도 여름철 별미로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간에는 금산의 전통민속 공연인 농바우끄시기, 물떼기농요, 금산농악이 함께 어우러졌고, 개막식 축하공연 및 열대야 음악회를 개최하여 신나는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강변여름밤의 감동을 이어갔다.

금강여울축제는 금강 상류의 맑은 물과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여름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됐다.

한편, 군은 금강여울축제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27일부터 개최되는 금산인삼축제에 분위기를 몰아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산=주연기기자

대전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 본격화

유성구 건축허가 통과 8월 착공 예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5일 주케이피아이 에이치가 신청한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허가신청 후 한 차례 보완요구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내진설계 보강, 방호장비 추가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건축허가가 처리됨에 따라 7월 중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8월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하7층/지상10층 연면적 294,371㎡ 규모로 신축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외에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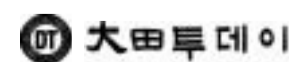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이전으로 병명네거리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돼 유성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래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

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대전 유성갑> 국회의원은 유성구의 유성복합터미널 건축허가 발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건축허가를 환영한다. 오랜 기대와 염원을 담은 복합터미널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복합터미널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유성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발표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12년 3명의 대전시장을 거쳐 추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시작도 못한 채 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성구의 건축허가로 이르면 오는 8월 착공,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오피스텔, 상업시설, 행복주택,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여객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유성복합터미널은 많은 우려곡절 끝에 시작되는 사업이다. 더 이상의 지체와 혼란은 곤란하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국과 사업자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미투

me too

술에

너 미생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